

# 해외건설 수주현황

## (2009년 12월 21일~2010년 1월 20일)

(금액단위 : 미화 천불)

업체명	국가	공사명	발주처	최종계약금액	공기
세종기업 (하청)	리비아	사리르 855MW 발전소(기계)	원청:현대건설	9,125	2009-01-10 2010-05-31
동영ENG (하청)	사우디	마니파 가스 시설 프로젝트 (전기/계장공사)	원청:GS건설	12,480	2010-01-01 2011-10-11
옥산기공 (하청)	사우디	마덴 발전 및 담수 프로젝트 (탱크제작, 설치 공사)	원청:한화건설	9,440	2008-10-01 2010-02-28
장한기술	우즈벡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시스템 개선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2,885	2009-12-29 2010-12-31
삼안 (합작)	인니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물 분야 기본조사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444	2009-12-14 2010-03-13
삼호건영	인도	롯데 인도 Nemam 공장 신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원청:롯데건설	6,258	2008-08-01 2010-02-28
삼호건영 (하청)	인도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냉장고공장 신축공사(열교환기 등 기계공사)	원청:삼성중공업	265	2010-01-10 2010-03-10
성도이엔지 (하청)	카타르	Pearl GTL 프로젝트(가스처리 공사)(배관)	원청:현대중공업	7,543	2008-08-14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 영국신사와 우산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가 올 때 남자들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17세기경 영국의 귀족들도 우산을 쓰지 않았는데 비를 피하려고 마차 안에만 있든지 두건으로 몸을 가렸다.

1637년에 프랑스의 루이 13세를 위해 방수 처리가 된 우산이 처음 만들어졌다. 18세기 초엽 영국에서도 우산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우산 쓰기를 꺼렸다. 귀족들은 하인에게 우산을 받치게 했다. 영국에는 비가 자주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우산 대신 여전히 마차를 더 이용했다. 존한웨이

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들은 마차를 부르는 것보다 우산을 쓰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산을 들고 다니게 되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는 비가 오면 우비와 비슷한 도롱이를 입고 샷갓을 썼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